

2022년 10월 9일(다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28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현세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샘이시니, 육신의 건강만을 찾지 맙시다. 이 거룩한 날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와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원하심을 깨닫고, 그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제1독서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5,14-17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다.>

화답송 시편 98(97),1,2-3 7 ㄴ .3 ㄷ ㄹ-4 (◎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서 말씀입니다. 2,8-13

<우리가 견디어 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복음 환호송 1테살 5,18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19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영성체 후 묵상

치유를 받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돌아와 감사드린 시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자비를 입은 열 명 가운데 혼자 돌아와 감사드린 외국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교황님 기도지향 - 10 월]



복음화 지향 : 모든 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도록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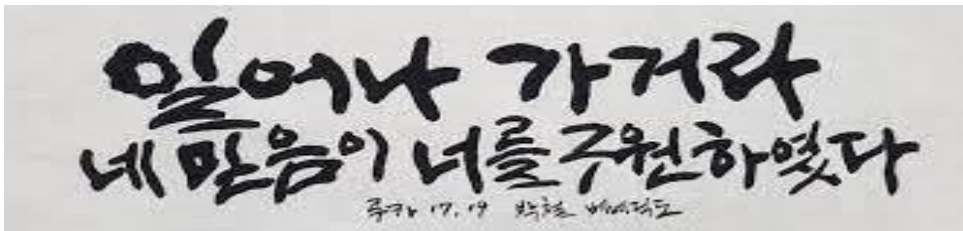
♣ 오늘의 복음 묵상 - 이성근 사바 신부 ♣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열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징벌로 여겨졌고, 전염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소외와 고독,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징벌이라는 사회적·종교적 인식까지 더해서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치유해 주시려는 의도를 지닌 말씀이지만,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작용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동안에 치유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열 사람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는 아홉 명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머물고 말지만,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돌아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치유를 받고도 돌아와 감사할 줄 모르는 아홉 명의 환자와 비슷합니다.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에 행복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생활을 감사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연중 제 28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나병환자를 치유하시다'(부분) 코시모 로셀리 작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루카 17,19).

Four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he verse.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묵주기도 성월의 기원과 의미

로사리오 성월은 다른 성월과 마찬가지로 그달의 중요한 축일과 관련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전례력에 의하면 10월 7일은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며 10월 7일이 로사리오의 성모 축일로 정해진 계기는 약 400년 전의 사건에 의해서입니다. 1571년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가 로사리오의 성모님의 도움으로 레반트 해전(1571년 10월 7일)에서 터키 함대를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황 비오 5세는 성모님의 원조를 부탁하고 자기 자신도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바치게 하고 또 병사들에게도 로사리오를 주어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승리는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에게로 돌아갔고, 이에 베네치아의 원로원은 연합제국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대승리를 안겨준 것은 장병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순전히 로사리오의 성모님이다." 이를 계기로 다음번 교황인 그레고리오 13세가 성모님의 원조를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로사리오의 축일을 10월의 첫째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 후 19세기에 교황 비오 9세 및 레오 13세 교황은 로사리오에 대한 회칙을 내고, 특히 10월을 로사리오의 달로 정하여 신심을 격려했습니다.

따라서 로사리오 성월은 우리로 하여금 로사리오를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 신비를 살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을 통한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전적인 순명과 희생으로 동참하신 성모 마리아의 믿음의 삶을 묵상하고, 이를 통해 구원의 신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쇠신하기 위해 로사리오 성월이 제정된 것입니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묵주기도 성월의 유래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께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함께 걷어가는 해 (The Year of Walking Together) 대교구 행사 안내

The Australian Bishops Commission for Evangelisation, Laity and Ministry 는 10월 20일 (목)부터 10월 22일(토)까지 전도(Evangelisation)에 관한 회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크리스토퍼 주교님께서서는 이 회담을 통해 호주에서의 전도에 대한 이해, 언어 그리고 다양성을 탐색해 보는 좋은 기회이며 각 지역의 소통과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 등록 및 관련 정보 링크] <https://nce.catholic.org.au/bcelm-conference/events/bcelm-conference>



20-22 OCTOBER 2022

evangelise

ENCOUNTER
DISCIPLESHIP
MISSION

성모 행렬(Marian Procession)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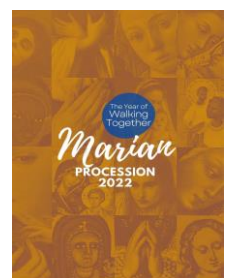
우리 공동체에서는 올해 대교구 성모 행렬에 참여합니다. (※ 이날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일시와 장소: 10월 23일(주일), 11:00~16:00, St Clement's Retreat and Conference Centre, Galong

※ 단체버스 출발시간 및 장소 : 오전 9시, 성당(St Vincent de Paul Church, Aranda)

[성모 행렬 식순] 11:00 고해성사→11:30 미사→12:30 점심식사→14:00 성모당(聖母堂) 행렬

[성모 행렬 안내] <https://www.catholicvoice.org.au/event/marian-procession-2022/>



| 연중 제 28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⑦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난민과 환경을 위해 기부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④
 화장실에서 종이타올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0.88kg 탄소 발자국을 줄입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어안채
 목주 기도 성월
 [목주 기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T_T]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박상운 토마스 신부님의 목주 기도 강의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입문 9]
 두가지 탈출 이야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탈출기 입문 | 광야시대 시작

cpbc 라디오
 시노달리타스 의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9 월 25 일	성인 31 아이 14	10 월 2 일	성인 32 아이 9
----------	-------------	----------	------------

□ 우리들의 정성 (10월 1일(토)~7일(금))

구민식	권요순	김요한	남궁영근	서진원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조성민	주정자	진윤기	항병욱			
교무금 \$720 (13 가정), 봉헌금 \$17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10월 9일, 연중 28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10월 16일, 연중 29 주일)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9일) 루카반 → (16일) 요한반 → (23일) 마리안 프로세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 (16일, 간식) 루카반 → (11월 6일, 식사) 마르코반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목주 기도 성월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29>



♡ Catholic Voice 9 월호
<https://www.catholicvoice.org.au/current-edition/>

